

KBS 단독대담, 푸틴 동방의 문을 열다

1. 특파원과의 악수, 한국과의 인연

(연구선 특파원)

첫 번째 질문은 한국과 러시아간, 러시아와 한국간의 파트너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러시아와 한국간의 파트너십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주시죠.

(푸틴 대통령)

먼저 한국에 초대해주신 한국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을 할 때인 1990년대 초쯤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 때 이미 한국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남부지방과 부산 등을 돌아보며 많은 공업단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때 우리는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또 지역적 차원에서 한국과 러시아 관계 발전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양국관계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개선됐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최우선 협력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한-러 양국 교역뿐만 아니라 양국 협력 분야의 다양성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감한 분야인 군사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번 한국 방문에서 두 나라 관계 발전에 관한 건설적인 협의가 가능하고, 또 이번 방한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한-러 양국 관계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철도연결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규선 특파원)

저도 지난 번 하산과 나진 철도연결 할 때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철도가 국경을 통과하고 나진까지 가고, 장기적으로는 그쪽지역의 석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류를 운반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요.

(푸틴 대통령)

네, 석탄 운송도 가능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운송 등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수요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가 도출된다면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잠재력은 한국 산업의 수요와 아주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성격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당연히 안보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전문적 차원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이러한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연규선 특파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와 대륙발전계획인 유라시아 전략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설명해주시죠.

(푸틴 대통령)

유라시아 전략은 훌륭한 이니셔티브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전략은 러시아 정부가 몇 년 전부터 마련한 러시아의 구체적 발전 전략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니셔티브 중 일부는 단순히 문서상의 계획안이 아니라 이미 실행에 있어서 분명한 진전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한반도종단철도와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사업

이며, 이는 아시아와 유럽 간 화물운송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공동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러시아 국영기업인 '러시아철도청'은 구체적인 사업 실행에 돌입했고, 북한 내 철도의 상당 부분을 보수하거나 복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과 북한이 서로 간의 정치적 난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종단철도 연결 사업에 동참한다면, 또 한국 기업이 북한 내 항만시설 구축을 포함한 철도교통인프라 개발에 참여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련하신 전망 있는 유라시아 전략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유라시아 전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대규모 통합프로젝트인 3국 관세동맹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속 단계로 우리는 3국 협력을 심화시켜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 확대 추진할 것입니다.

많은 국가가 이 3국 관세동맹 추진 과정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하는 베트남도 그 중 한 국가입니다. 한국도 당연히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관심이 있다면, 관세동맹에 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인들이 1억 7천만 명 규모 시장에 대해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극동개발, 한러경제 협력

(연규선 특파원)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의 잠재력,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평가하십니까?

(푸틴 대통령)

시베리아, 특히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의 가속화는 러시아의 우선 과제입니다. 러시아는 특히 극동지역에서 한국의 이웃 나라입니다. 북한을 사이에 두고 영토가 이어져 있고 바다로도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국의 높은 기술력이 확보된 분야, 그리고 지역 개발을 촉진할만한 분야에서는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로 조선업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동에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상당 기간 한국 파트너 회사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인 협력과 업무 진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능력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한국 기업의 참여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외에도 극동 교통 시스템 개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시베리아횡단철도, 바이칼-아무르 철도 등의 확대 가능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우리는 정부 예비자금과 국가복지기금 등의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개발은행과 한국의 해당 은행간 그리고 러시아 투자기금과 해당 한국 금융기관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예를 들면 우주산업분야의 경우 러시아 동부지역에 새로운 우주발사기지를 건설 중이고, 이는 경제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교육, 보건 분야 협력도 물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는 지난해 APEC 의장국이었습니다. 행사 주최와 진행 준비를 위한 건물과 시설을 극동연방대학교 안에 건설했습니다. 이 시설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역내 인재 양성을 위한 좋은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연구선 특파원)

푸틴 대통령께서 지난번 APEC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동해바다에 해저가스관터널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밝히신 배경, 북한에 대한 고려, 이런 게 있으신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푸틴 대통령)

러시아는 특히 한국과의 접근성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매우 편리한 에너지 공급국입니다. 러시아 기업들은 현재 천연가스 사업을 진행 중이며 구체적으로 러시아 북부 지역인 야말 반도와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극동지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천연가스 공급 방법 중 한가지며, 가스관 시스템을 구축해 가스관을 통한 공급도 가능합니다.

가스관 구축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한데, 해저가스관을 건설하거나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남북간의 정치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지상가스관 건설이 가격과 안전성 면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남북한 관계에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남북한이 합의한다면 가스관 건설 사업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저 가스관 건설도 가능하지만, 사전평가에 따르면 쉽지 않은 건설이 될 것입니다. 바다에 깊은 곳도 있고, 또 고려해야 할 것은 해저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는 납득 가능한 장기적인 가격 형성으로 일정한 공급량을 확보할 때만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해저 가스관 인프라 투자는 수익성 보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4. 6자회담, 비핵화 , 통일

(연구선 특파원)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6자 회담 문제가 지금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6자회담의 역할과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푸틴 대통령)

물론 저는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의 실망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6자회담은 다소 정체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매커니즘이 없는 실정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미 첫 질문에 답한 것처럼 러시아는 한국과 우호협력관계이고, 북한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정체돼 있는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선 특파원)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사전 전제조건을 요구하는 측이 있고요. 또 즉각적으로 6자회담을 재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푸틴 대통령)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체돼 있는 6자회담의 재개입니다. 그리고 재개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는 당연히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재개를 위한 사전 조건을 계속 제시한다면 회담은 재개되지 못할 것입니다.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 당사국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아주 첨예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경우, 만약 최후통첩과도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필요한 결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회담이 당사국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인식과 선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선 특파원)

대통령께서는 남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틴 대통령)

러시아는 당연히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지합니다. 통일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양측의 이익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통일을 이룬다면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현재 존재하는 모든 한계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공동 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더 쉽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통일의 과정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때 지지할 것입니다.

(끝)